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헌금의 의미와 약속

[빌 4:15-16]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카이 하팍스 카이 디스[‘몇 번,’ 혹은 ‘여러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주후 47년경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행 13:1-3) 주후 50년경 2차 전도여행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가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행 16:12).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을 떠나 다른 곳들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 후원금으로 그를 몇 번 도왔음을 가리킨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했을 때(행 17장), 그들은 벌써 그를 돕기 시작했었다. 그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그 교회뿐이었다. 헌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다. 물론 전도는 국내외의 전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교회의 목회활동들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는 자체의 행사와 교제를 위해서는 헌금을 절약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본문은 헌금이 성도의 선한 열매임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원하신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헌금은 좋은 열매이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은 헌금이 헌금하는 자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보인다. 헌금은 헌금하는 자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한다. 우리는 헌금하는 자신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 구약시대 헌금의 표준은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이었지만(레 27:30-33; 말 3:8), 신약시대 헌금의 표준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십일조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8:7, “너희는 믿음과 말

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헌금)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구약의 십일조 규례는 의식법으로 신약 아래서는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으나 위축된 방식으로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소득의 십일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본문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증거한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도 약 17번 나온다(창 8:21; 출 29:18; 레 1:9, 13, 17; 2:2, 9; 3:5, 16 등).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 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유화(有和)의 향기,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향기라는 뜻이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표시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들만 즐거이 헌금할 수 있다(고후 8:5). 또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므로, 그것은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이다. 물론 이것들 중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헌금도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고전 16:2).

[19-20절]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헌금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시편 24: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학개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대상 29:11, 14).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며 성경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시편 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지손이 복을 받는도다.” 잠언 11:24-25,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의식주의 필요]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엘리아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좋은 예이다. 기근이 왔고 요단 앞 그릿 시내가 마르자 선지자 엘리아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 떡 한 조각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떡이 없었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아의 요청대로 그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아가 여러 날 먹게 하였고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왕상 17:8-16).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히 믿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실 것이다.

[21-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와 ‘형제’라는 명칭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명칭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고(히 10:1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엡 2:19; 마 12:50).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누리는 복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기를 원하며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문안도 그들에게 알린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놀라

운 사실을 보인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가 전한 복음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집 안에까지 들어갔다. 로마 황제의 가족들 중에 믿는 이가 생겼다! 이것은 전도의 놀라운 진전이며 결실이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고 확장되고 있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행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헌금, 특히 전도와 구제를 위한 헌금은 성도의 좋은 열매이다.

둘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의 삶 전체가 그렇지만(롬 12:1),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셋째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헌금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 복을 받을 선한 행위이다.

주일오후설교 어린양이 찬양을 받으심

[계 5:1-5]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책은 장차 될 일들, 즉 교회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일 것이다. 안팎에 썼다는 말은 그 내용이 많고 자세함을 보인다.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은밀히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며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계시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의인의 영들 중에도 없고 땅 위에 살아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여 울었을 것이다.

그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다.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창세기 49:9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예언과 이사야 11:1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 등에 근거했다고 본다. ‘뿌리’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2:16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 실상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이기셨다’는 말은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는 뜻일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

[6-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본 어린양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상징한다.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로 그 사실을 확증하셨다. 어린양에게 있는 일곱 뿔은 그의 신적 능력을 보이고 일곱 눈은 그의 신적 통찰력과 지식을 보인다.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이시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어린양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을 취하셨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어린양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인류 역사의 미래와 종말 사건들, 심판과 최종 영광까지를 계시하실 자격자가 되었다. 미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양에 의해 하나씩 계시될 것이다 (계 6:1).

[8-10절]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엎드렸고 장로들의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¹⁾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우리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린양이 책을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자이시다. 24장로들은 각각 거문고와 향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성도의 기도들은 향에 비교되었다.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 죄의 고백, 및 소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과 같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노래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어린양과 같은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세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救贖)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찬송은 속죄 찬송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해야 한다.

또 주께서는 그의 속죄사역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되었다. 우리는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다(계 20:6; 22:5).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11-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수 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 그 천사들의 수는 천천 만만으로 표현되리만큼 매우 컸다. 그들은 어린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 어린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특히 신성(神性)을 가지신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양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어린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그들의 찬송은 합당한 찬송이다.

[13-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 ‘가졌다는’ 남성현재분사의 주어는 ‘장로들’이라고 본다.

천지의 만물들,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기타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리는 만물의 영광스러운 합창이었다. 여기에 한번 더 성자(聖子) 예수께서 성부(聖父)와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다는 삼위일체 교리가 증거된다. 만물들의 찬송에 대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배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 사건들을 계시해주셨다. 신적 구주이신 그는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자격자가 되셨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계시를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믿고 그의 속죄사역을 감사해야 한다.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본래 다윗의 뿌리이시며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시다. 그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친히 그의 피로 온 세상의 택자들을 구속(救贖)하셨고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해야 한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천 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영원한 찬송을 돌렸다.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메시아의 단번 속죄

[속 3:1-3]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나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다고 보인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죄의 징벌로 인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위의 의로움이 없음을 보인다. 인생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4-5절] 여호와께서 그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시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罪過)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淨)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과를 제거

여 버리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받을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의 복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다. 또 깨끗한 관은 존귀한 신분을 뜻할 것이다.

[6-7절] 여호와와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미쉬메렛)[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딸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모페스)[표적, 상징,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체마크[가지를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곧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예표했다. 하나님께서는 또 메시아를 ‘내 종 순[가지]’이라고 부르셨다.

[9-10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는 말씀은 메시아께서 속죄 사역을 위해 고난 받으실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의 모든 택자들의 죄악들이 하루에 제거되었다(단 9:24).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듯이 평안과 즐거움의 날이 올 것이다. 신약 성도들은 그런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예표된 메시아이시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예표하였다. 구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실 속죄의 어린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죄(赦罪)와 칭의(稱義)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셨다. 히브리서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말씀만 믿고 힘써 행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야 한다. 이것은 사죄와 칭의의 복된 결과이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열매이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